

길거리 푸른버들 썩그린 눈썹 물들이네

봉은사 회주 추대 법회

덕민 스님(불국사 승가대학장)

봉은사(주지 원화)는 2월 16일 법당에서 회주 덕민 스님 추대법회 '불광보조, 환희와 행운을 창조하다'를 거행했다. 불국사 승가대학장인 덕민 스님은 이날 허응당 보우 스님의 상춘시인 '개창상춘(開窓賞春)-창문 열고 봄구경'이라는 선시를 강요했다. 덕민 스님은 선시를 통해 삼라만상의 현상은 우리의 마음으로 그려내는 것이며 상대적 현상세계를 부처님 절대적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주객(主客)과 능소(能所)가 따로 없는 일원상(一圓相)이며 화엄의 세계라고 강조했다. 정리=이은은 기자

조선시대는 이른바 승유역불(崇儒抑佛)의 시대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불교가 극심한 수난을 겪었던 시기는 성종과 연산군 그리고 중종으로 이어진 3대의 70여 년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조선 불교 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던 이 시기에 국가는 사찰과 종파를 통폐합했으며, 승적을 박탈하고 승려를 징집하는 등 불교에 대한 탄압과 배척을 정책적으로 지속했습니다.

조선 중기 명종대의 고승인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1515~1565) 스님은 그러한 시대에 불교 중흥에 앞장서서, 이후 한국 불교의 명맥을 잇게 한 인물입니다.

특히 중종의 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명을 받아 봉은사 주지로 있는 8년 동안, 보우대사는 선·교 양종을 부활시키고 교단을 정비했으며, 승려 과거제도를 다시 실시하는 등 일련의 불교 부흥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 사후에 그는 유생들에 의해 '요승(妖僧)'으로 몰려 끝내 제주에 유배되어 순교하는 비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400여 년이 지나도록 그는 일방적인 자료로만 매도되다가 최근에 이르러서야 <허응당집>을 비롯한 저술들이 다시 빛을 보게 되면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사명 스님은 <허응당집> 발문에서 "생각하건대 우리 대사께서는 동방의 외지고 좁은 땅에 태어나서야 백세 동안 전해지지 못했던 도의 실마리를 열어 오늘날 배우는 자들이 이에 힘입어 그 돌아갈 바를 얻게 하시고 이 도로 하여금 마침내 사라지고 끊어지지 않게 하셨으니, 이 분이 아니었다면 영산의 풍류와 소림의 가락이 거의 멈추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상고하여 논하건대, 천고에 홀로 오셨다가 홀로 가신 분이냐 하겠다"라며 구구절절이 보우 스님에 대해 썼습니다.

영산의 풍류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처님이 영산에서 설법을 하시는데 하늘에서 네 가지 꽃이 비 내리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였습니다. 이에 가섭이 빙그레 미소 지으니, 부처님께서는 "나에게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있는데 마하가섭에게 전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미소 속에는 일체중생이 다 원만한 진리를

구족하고 청정한 법신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가섭존자만이 정법안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만 줄 리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원만한 진리를 구족하고 청정한 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해준 것입니다.

불교는 생명이고, 광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바르지 못하면 세상이 바르지 못합니다. 마음이 탁하면 세상이 탁하고 마음이 바르면 천지가 바르게 됩니다. 전부 내 마음을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냐 그 갈림길에서 선과 악이 벌어집니다. 지옥과 천당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가섭존자는 영화미소를 통해 불교에서 최고의 진수를 통째로 드러냈기에 부처님은 가섭존자에게 대표 정법안장을 준 것입니다.

그 가섭존자의 미소 속에 여러분들의 살림살이가 다 들어있고, 갖춰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부처님과 나하고 2500년 시공 차이가 있지만, 그 영화미소나 그 정법안장 속에는 시공(時空)이 떨어진 자리이며, 삼라만상의 차별이 끊어진 절대적 진리의 세계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세계에서 절대적인 자리에 앉아있고, 설법할 때 상대적인 차별의 모습으로 내려와 절대적인 진리를 보입니다. 삼라만상의 모습으로 하여금 차별이 끊어진 절대적인 세계를 열어놓고 쓰다듬고 다 들어오게 합니다. 그 영산의 풍류가 중국에서 서문영송이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시 강의를 들 때는 영화미소 차원인 절대적인 차원에서 해야지 이 몸뚱이 의식과 세속적인 지식 철학 가지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창문열고 봄구경하다
春風吹簾竹房寒(춘풍취죽축방한)
轉開禪窓賞物歡(환개선창상물환)
水泐喜聞深澗響(빙날희문심간향)
雪銷驚見遠山顏(설소경견원산안)
靑歸巷柳啣眉染(청귀巷柳협미염)
紅入園桃笑額斑(홍입원도소액반)
賞極驕然閑擧首(상극변연한거수)
烟中蒼翠數峰巒(안중창취수봉만)

봄바람 불어 대나무방 찬기운 몰아내거늘
선방 창문 활짝 열고 봄을 감상 한다
얼음 풀리 줄줄 시냇소리 즐겁게 들으며
눈 녹으니 깜짝 놀라 먼산 얼굴을 본다
길거리 푸른 버들 썩그린 눈썹 물들이고
뜨락에 붉은 빛 복사꽃에 붉은 반점 만드네
한껏 구경에 빠져다가 다시 눈을 돌리니
어느새 푸른 산봉우리 저녁노을에 빠져드네

보우 스님이 봄나들이를 가서 청평사에서 지은 개창상춘(開窓賞春)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창(窓)을 열어놓고 봄을 감상(感興)한다는 것입니다. 겨우내 추위에 움츠려 문을 꼭꼭 닫아놓고 지내야 하는 인고의 세월에서 봄이 오자 문을 열어 봄을 맞이 합니다. 봄바람이 선방의 추위를 몰아내었다 함



덕민 스님은 ... 13살 때 우흥 스님을 은사로 동진 출가해 1965년 청암사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하고, 고봉 큰스님과 우흥, 고산 스님 문하에서 정진한 학승이다. 절집에서의 정진에만 머물지 않고 공부를 위해 1972년에는 태동고전연구원 15년간 사서삼경을 수학했으며, 1973~87년에는 추연 권공현 문하에서 한학을 사사했다. 1970년에 법주사 강사, 1988년 쌍계사 강주를 거쳐 범어사 강주를 지냈고, 현재는 불국사승가대학 학장으로 있다. (사진제공=봉은사)

의식구조 벗어버려야 큰 살림살이 가능
내 마음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에 충만해 있어

상대적 차별 세계에 꼭 차 있으면
절대적 평등의 진리 볼 수 없어

보우 스님 상춘시는

내 마음이 청정한 진리에 안주하다
몰록 한 생각 일으켜 진리 있음 알리워

이 시의 도입입니다. 춘풍(春風)과 추위(寒) 맞대응의 글자가 한 공간에 있어 하나의 유입과 하나의 퇴출로 봄을 시작시킨 것입니다. 추운겨울에는 삼라만상의 모습이 웅크려 있지만 그 가운데는 삼라만상의 이치가 또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한 생각 일으키는 것을 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체(體)를 좇아서 용(用)을 일으키고 용을 포섭해서 체로 돌아가며, 본바탕 진리에 의해 현상적 차별의 세계를 비취 보이는 것입니다.

이는 캄캄한 밤에 달이 비추고 아침이면 동산에 해가 떠오르는 것과 같으며 봄바람이 불어 차가움을 몰아내는 것은 자기 자신의 뜰에 봄바람을 의미합니다. 선에서는 내가 봄바람이다 하면 내가 봄바람이

되는 것이며 모든 상, 모든 사물의 모습을 하나로 짚어 보기 때문에 내 모습과 삼라만상, 주관과 객관, 능소의 관계를 좁힙니다.

선에서는 의식구조를 벗어버려야 큰 살림살이가 꽃힙니다. 우리의 마음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삼라만상 우주에 충만해 있으며 내 것이라는 상대적 차별세계에 꼭 차 있으면 절대적 평등의 진리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보우 스님의 상춘시는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진리의 세계에 안주해 있다가 한 생각 일으키니 세상사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내 소리가 커진 것을 알고 보니 얼음이 녹은 것을 알고, 먼 산의 얼굴이 드러나니 눈 녹은 것을 압니다. 얼음[氷]과 눈[雪]의 대칭은 겨울과 추위라는 동질적 속성하기에 이질감이 없지만 깊은 시내나 먼 산의 대칭은 상하의 위치가 극명한 대립이고, 들다[聞] 보다[見]의 대칭도 청각 시각의 뚜렷한 맞물림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과 긴장을 함축시키는 문학적 수사의 모티프입니다.

여기서 살필 것은, 얼음이 녹기 전에는 물소리가 안 들리지만 얼음이 녹으니 깊은 시냇물 소리가 들리고 심장 속에 땀뭍고 흐르는 것입니다. 눈이 녹기 전에는 산과 눈이 똑같았는데 눈이 녹으니 눈 속에 갇혀 있던 산의 푸른 빛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청정한 진리에 안주해 있다가 한 생각 일으키니가 얼음이 녹고 계속 물소리가 심장에 땀뭍고 흐른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의 동(動)과 정(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문에 "임수지문수 이산지견산(任水之聞水 以山之見山)"이란 글이 있습니다. 내가 물을 보고 물소리

를 듣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물이 제소리를 듣고 산이 산을 본다는 것은 자연과의 합일이며 능소 관계가 끊어지고 주관과 객관이 없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서 깨닫고 확실하면 세상사 진리를 똑바로 볼 수 있습니다.

푸르름이 돌아오다(靑歸)와 진홍빛 들다(紅入)의 수사를 보면, 정적 색깔을 동적 움직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러기 위해 유인해 온 것이 버들잎이요, 복사꽃입니다. 버들잎의 가느다란 모습을 상징하려 동원된 것이 썩그림(啣)이고 복사꽃의 환함을 상징하려 함이 웃음[笑]입니다.

보우 스님의 '개창상춘' 시는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시입니다. 봄바람이 불 때는 마음을 내서 삼라만상에 젖어보고 눈구경, 물구경, 길거리 버드나무 잎새, 뜨락의 복사꽃을 실컷 그림 그리고는 다시 본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저녁노을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부처님 절대 진리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차별의 세계에 나와서 돌아갈 줄 모릅니다. 돌아가야 하는데 돌아갈 줄 모르는 것이죠.

불교는 그냥 읽고 믿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하고 깨닫고 접촉해서 화엄의 세계에서는 모두 같이 어우러져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을 보면 내 자신이 눈이 되고 산을 보면 산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하므로 선에서는 집필묵(執筆墨)이 필요치 않습니다. 동양의 선시 구절은 사계절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실상의 모습이며 우리의 모습입니다. 절대 혼자서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자신과 부모 국가 무리가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마루티에스와 함께하는 불교성지 순례 프로그램” 도반기행 “道伴紀行”

“道伴紀行” 불교성지 순례일정

1.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8일 (인도향공)

▶ 인도 / 네팔 불교 7대성지를 따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델리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인천

2. 인도 / 네팔 불교성지 순례 12일 (대한향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인도 / 네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일정 ◀
: 인천 - 롬바이 - 엘로라 / 아진타(불교석굴군) - 델리(국립박물관 - 진신사리)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보드가야(성도지)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쿠시나카르(열반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룸비니(탄생지)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인천

3. 인도 / 네팔 / 스리랑카 불교성지 순례 15일 (대한향공)

▶ 국적기를 이용하여 네팔 / 인도 / 스리랑카의 불교성지와 핵심지역을 순례하는 대장정 일정 ◀
: 인천 - 카트만두(스와야ம்ப우나트) - 룸비니(탄생지) - 스라바스티(기원정사 - 금강경) - 쿠시나카르(열반지) - 바이샬리(2차불교결집) - 라즈기르(영취산 - 법화경 / 나란다불교대학) - 보드가야(성도지) - 바라나시(초전법륜지) - 델리 - 콜롬보 - 이누라다푸라(스투파 / 보리수) - 시기리야(시기리야성채) - 플룬나루와(고대불교도시) - 담불라(불교석굴군) - 캔디(불치사 - 부처님 치사리) - 누와라엘리아 - 콜롬보 - 인천

장기일정은 항공사 및 현지 부대의 상황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도반기행 포함 및 특전사항

- ① 국제선 / 국내선 항공권 포함 / 유류할증료 / TAX
- ② 구간별 한식조리점 동행 및 한식 제공
- ③ 전일정 가이드/기사/한식주방팀 팀 포함
- ④ 인도/네팔/스리랑카 비자 대행서비스 포함
- ⑤ 전일정 4성 혹은 5성급 호텔 이용
- ⑥ 전일정 불교성지 전문 가이드 동행
- ⑦ 인도 다르질링 차(茶) 1인 1팩 증정
- ⑧ 전일정 매일 1인 2병 생수 증정
- ⑨ 바라나시 갠지스강 꽃등(燈) 제공
- ⑩ 여행자보험 포함

* 개인경비는 (전화, 개인적인 팁, 카페 등) 불포함*

◀ 8대 佛教聖地 지역 안내 ▶

- ① 보드가야(Bodhgaya) : 불교 제1성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成道地
- ② 사르나트(Sarnath) : '초전법륜지'라 불리며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나서, 첫 설법을 하신 곳, 佛·法·僧 불교의 三寶가 시작된 곳.
- ③ 스라바스티(Sravasti) : 부처가 24회 안거를 보낸 '기원정사'가 있는 곳으로, 금강경/능엄경/원각경 등을 설법하신 곳.
- ④ 라즈기르(Rajgir) : 불교 교단 최초의 절(寺) '죽림정사'와 부처가 법화경을 설법하셨던 영취산(영취산)이 있는 곳.
- ⑤ 바이샬리(Vaishali) : 부처가 반야사상 '유마경'을 설법하신 곳, 원왕봉밀(猿王奉蜜)장소에 아쇼카왕(전륜성왕)이 석주를 세운 곳.
- ⑥ 쿠시나카르(Kushnagar) : 부처가 열반에 든 곳. '모든 현상은 변천한다. 게으름 없이 정진 할 것이다'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긴 곳.
- ⑦ 룸비니(Lumbini) : 부처 탄생지 마야데비 부인 사원과 구름뭉치 있는 곳.
- ⑧ 상카시아(Sankasya) : 부처님이 도리천에 올라 어머니 마야데비를 위해 법을 설하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곳.



INDIA

Find what you seek
Incredible India



서울시 중로구 관철동 청계천로 55, 1002호 (110-111)
대표이사: 김영근 | 사업자등록번호: 101-86-38540

전화 02)733-3155 / 팩스 02)6008-0096
이메일: maru@maruts.co.kr